

수서업무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에서의 구입 도서 이용에 관한 연구

-K대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김 원 중(Kim, Won-Jung)*

목 차

- | | |
|--------------------------|--------------------------------------|
| 1. 서 론 | 4.2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횟수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3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이용요인
(use factor) |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4.4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권수 |
| 2. 선행연구 | 4.5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권수 당
대출횟수 |
| 3. 이용 분석 I | 5. 결론 및 제한 |
| 3.1 연도별 대출횟수 | 참고문헌 |
| 3.2 연도별 대출권수 | |
| 4. 이용 분석 II | |
| 4.1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 도서 현황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서업무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에서의 구입 도서 이용 현황을 분석하는 데 있다. 도서 선정 기준 및 장서개발정책에 의하여 구입된 도서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K 사립대학 도서관의 최근 7년(2008. 03. 01.~2015. 02. 28.)간 구입 등록된 260,656권을 대상으로 연도별 대출횟수 및 연도별 대출권수(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된 도서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수서팀 과장 / wonjung@kookmin.ac.kr

위하여 동 대학도서관의 최근 2년(2013. 03. 01.~2015. 02. 28.)간 구입 등록된 53,866권을 대상으로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 도서 현황, 대출횟수, 이용요인(use factor), 대출권수, 대출권수 당 대출횟수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구입 도서의 이용 분석을 통하여 대학도서관에서 자관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수서업무의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키워드 : 대학도서관, 수서업무, 장서개발정책, 대출횟수, 대출권수, 이용요인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서(acquisition) 또는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의 최대 명제는 ‘適時에 適者에게 適書를’ 수집·제공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¹⁾ 즉, 모든 대학도서관은 구성원들의 연구와 교육 활동 지원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유지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균형있는 장서 구성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서관 장서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 등록하여 장서를 합리적으로 구성²⁾하고자 하는 수서업무는 당해 대학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이용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여 양질의 장서 확충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최근 전자자료의 수요 증가 및 급속적인 양적 확대는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뿐 아니라 대내·외적 대학도서관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수서업무에 있어서는 전자자료 구입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소장 공간 부족 문제, 도서 이용률 및 도서관 이용자 감소, 지속적인 자료구입비 예산 삭감 등 대학도서관 현안들과 더해져

결국 장서 구성의 불균형 심화, 단행본 도서의 구입 축소로 이어지는 이른바 도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단행본 도서 수서업무 담당자는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요구 충족, 양질의 장서 확충을 위한 전략적 장서개발 정책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이용자 요구 분석, 자료의 선택, 입수, 관리, 이용, 평가, 폐기에 이르기까지 도서관 전반에 걸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장서개발³⁾에 대한 계획과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복본수 조정, 선정 기준 강화 등 구체적인 구입 기준 검토, 둘째, 이미 구입된 도서의 이용평가 및 희망 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 도서 이용평가 등 물리적 장서(physical collection)의 평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물리적 장서의 평가는 현행의 장서개발 정책과 수서 프로그램이나 방법, 소스들을 평가하거나, 수서 예산들을 배정하기 위한 더 합리적인 근거 제공 등 여러 목적들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도서관의 관점(내부 지향) 또는 고객의 관점(외부 지향)에서는 물론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둘 모두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⁴⁾ 특히 양적 방법에 의한 장서 평가 중 이용 분석을 통한 장서 이용평가는 대내·외적 대학도서관 환경

1) 윤희운(2014), 174-175면.

2) 송영희 외(2011), 269면.

3) 김미향(1996), 5면.

4) Matthews, Joseph R. ; 오동근 역(2010), 175-176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서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장서이용평가를 통해 수서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수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장서이용행태 파악을 통한 이용자서비스의 효과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⁵⁾ 또한, 수서업무와 관련한 도서관 선정의 평가는 도서관 선정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더욱 바람직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서업무를 중심으로 구입 도서관의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하여 대학도서관에서 자관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수서업무를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도서관 선정 기준 및 장서개발정책에 의하여 구입된 도서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둘째,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된 도서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구입 도서관의 연도별 이용 현황과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이용 현황 분석을 위한 연구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서울 소재 K 사립대학 도서관

(이하 K대학도서관)을 연구사례로 선정하고, K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LAS (Solars7) 시스템을 통하여 통계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둘째, 언어별 도서관 구분은 K대학도서관의 장서 구분 기준에 따라 ‘동서’와 ‘양서’로 하였으며, 동서는 국내서와 동양서를 포함하고, 양서는 동서를 제외한 국외서로 하였다.

셋째, 구입 도서관의 연도별 이용 현황은 K대학도서관에서 최근 7년(2008. 03. 01.~2015. 02. 28.)간 구입 등록한 260,656권(동서 227,116권, 양서 33,540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이용 현황은 그 중에서 최근 2년(2013. 03. 01.~2015. 02. 28.)간 구입 등록한 53,866권(동서 45,485권, 양서 8,381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구입 도서관수는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고(기증, 교환도서 제외), 대출 현황과 관련 없는 구입 자료(정기간행물, 참고도서)는 제외하였으므로, K대학도서관 장서 등록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 둔다.

2. 선행연구

구입 도서관의 이용 분석 및 평가,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 도서관 평가 및 장서개발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

5) 김선애(2013), 116면.

6) 황옥경(2007), 126면.

음과 같다.

장우녕, 이용구(2014)는 희망도서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K대학교서관을 대상으로 선정된 희망도서의 주제별 비율을 대출가능한 장서 비율과 비교하였으며, 신청자 그룹별로 이들 도서의 이용현황을 비교하였다. 신청자 그룹별 대출 비율을 보면 학부생이 가장 높고 교수, 대학원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요인은 학부생이 1.51로 가장 높고 대학원생, 교수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애(2013)는 A대학교서관 이용자들의 대출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이용자의 장서이용정도, 주제별 이용정도, 이용자유형에 따른 주제별 자료이용정도, 최신자료에 대한 선호도, 이용자 유형에 따른 최신자료의 선호도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을 활용하여 장서관리정책을 수립할 때 자료이용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황옥경(2007)은 국내 K대학교서관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교수, 사서, 학생 집단을 통해 선정된 도서관의 대출 비율 비교를 통해 도서 선정의 주체에 따른 도서 선정의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신분별로 선정된 도서를 대상으로 미대출도서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서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미대출 도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를 대상으로 대출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생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대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봉호(2008)는 국내 K대학교서관의 대출통계를 토대로 장서의 이용평가를 위해 장서의 주제별, 언어별, 출판년도별로 이용률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이용패턴 분석을 위해 주제, 언어, 출판년도 변수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신분별로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언어별 장서평가 결과에서는 국외서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국외서 장서구성에서 이용률을 고려한 신중한 자료선택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Bonn(1974)은 대출비를 대비 장서비율을 이용하여 이용요인(use factor) 값을 산출하고 장서 이용률을 분석하였다. 1을 기준으로 이용요인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분야 장서가 많이 이용되며, 이용요인 값이 적으면 해당 분야 장서 이용이 적음을 나타낸다.

또한, Terry Mills(1981)는 이 개념을 확장하고, Bonn의 이용 지수는 100을 곱하여 “기대되는 이용의 퍼센티지”를 산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어떤 주제 영역의 기대되는 이용이 100퍼센트라면, 100퍼센트가 넘는 주제 영역들은 기대를 초과하여 이용되는 반면, 100퍼센트 이하의 영역들은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것이다.⁷⁾

7) Matthews, Joseph R. ; 오동근 역(2010), 183면, 재인용.

3. 이용 분석 I : 구입된 도서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3.1 연도별 대출횟수

구입 도서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특정 해에 구입 등록된 권수 대비 해당 도서의 대출횟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구입된 도서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4학년도 1년 동안 K대학교도서관에서 구입 등록한 도서는 21,045권이고, 그 도서가 해당 기간 동안에 이용된 대출횟수는 11,212회로 2014학년도 대출횟수비율(%)은 53.28%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3학년도 1년 동안 구입된 32,821권은 2년 동안 33,845회의 대출횟수 통계를 보여 대출횟수비율(%)은 103.12%, 연평균 대출횟수비율(%)은 51.56%로 나타

났다. 구입 시기가 오래된 도서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8학년도(최근 기준으로 부터 7년 전) 1년 동안 구입된 47,728권의 도서는 7년 동안 189,584회의 대출횟수 통계를 보여 대출횟수비율(%)은 397.22%로 나타났으며, 이는 7년 전 구입된 도서 1권 당 7년 동안 약 4회의 대출횟수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8~2014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구입된 260,656권은, 해당 기간 동안 638,559회의 대출횟수 통계를 보여 대출횟수비율(%)이 244.98%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하여 최근 7년간 구입된 전체 도서 1권 당 7년 동안 약 2.44회의 이용 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7년간의 연평균 대출횟수비율(%)을 살펴보면, 2014학년도 53.28%, 2013학년도 51.56%, 2012학년도 51.20%, 2011학년도 54.19%, 2010학년도 59.68%, 2009학년도 54.12%, 2008학년도 56.75%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입 시기가 오래된 도서도 지속적인

<표 1> 연도별 대출횟수 (전체 도서)

구 분			구입 등록 권수	대출횟수	대출횟수비율 (%)	연평균 대출횟수비율(%)
학년도	산정 연수	대출횟수 산정 기간				
2014	1년	(2014.03.~2015.02.)	21,045	11,212	53.28	53.28
2013	2년	(2013.03.~2015.02.)	32,821	33,845	103.12	51.56
2012	3년	(2012.03.~2015.02.)	35,608	54,692	153.59	51.20
2011	4년	(2011.03.~2015.02.)	38,535	83,524	216.75	54.19
2010	5년	(2010.03.~2015.02.)	38,190	113,953	298.38	59.68
2009	6년	(2009.03.~2015.02.)	46,729	151,749	324.74	54.12
2008	7년	(2008.03.~2015.02.)	47,728	189,584	397.22	56.75
계			260,656	638,559	244.98	-

※ 대출횟수비율(%) = 대출횟수 / 구입등록권수 * 100

※ 연평균 대출횟수비율(%) = 대출횟수비율(%) / 산정연수

〈표 2〉 연도별 대출횟수 (동서)

구 분			구입 등록 권수	대출횟수	대출횟수비율 (%)	연평균 대출횟수비율(%)
학년도	산정 연수	대출횟수 산정 기간				
2014	1년	(2014.03.~2015.02.)	16,884	10,191	60.36	60.36
2013	2년	(2013.03.~2015.02.)	28,601	32,190	112.55	56.27
2012	3년	(2012.03.~2015.02.)	29,416	51,250	174.22	58.07
2011	4년	(2011.03.~2015.02.)	33,664	79,118	235.02	58.76
2010	5년	(2010.03.~2015.02.)	33,941	109,638	323.03	64.61
2009	6년	(2009.03.~2015.02.)	41,214	145,624	353.34	58.89
2008	7년	(2008.03.~2015.02.)	43,396	183,467	422.77	60.40
계			227,116	611,478	269.24	-

고 꾸준한 이용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구입 시기가 오래된 도서에 대한 장서개발정책(보존 및 폐기) 수립시 해당 통계를 활용한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언어별 이용 현황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표 1>의 연도별 대출횟수를 동서와 양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 <표 3>과 같다. 동서의 경우 연도별 대출횟수는 <표 2>와 같으며, 2008~2014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구입된 227,116권은, 해당 기간 동안 611,478회의 대출횟수 통계를 보여 대

출횟수비율(%)은 269.24%로 나타났다.

양서의 경우 연도별 대출횟수는 <표 3>과 같으며, 2008~2014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구입된 33,540권은, 해당 기간 동안 27,081회의 대출횟수 통계를 보여 대출횟수비율(%)은 80.74%로 나타났다.

2008~2014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구입된 260,656권의 대출횟수비율(%)은 244.98%이며 이와 비교해 볼 때, 동서는 269.24%로 높은 이용통계를 보이는 반면, 양서는 80.74%로 나타나 언어별 이용 현황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연도별 대출횟수 (양서)

구 분			구입 등록 권수	대출횟수	대출횟수비율 (%)	연평균 대출횟수비율(%)
학년도	산정 연수	대출횟수 산정 기간				
2014	1년	(2014.03.~2015.02.)	4,161	1,021	24.54	24.54
2013	2년	(2013.03.~2015.02.)	4,220	1,655	39.22	19.61
2012	3년	(2012.03.~2015.02.)	6,192	3,442	55.59	18.53
2011	4년	(2011.03.~2015.02.)	4,871	4,406	90.45	22.61
2010	5년	(2010.03.~2015.02.)	4,249	4,315	101.55	20.31
2009	6년	(2009.03.~2015.02.)	5,515	6,125	111.06	18.51
2008	7년	(2008.03.~2015.02.)	4,332	6,117	141.20	20.17
계			33,540	27,081	80.74	-

〈표 4〉 연도별 대출권수 (전체 도서)

구 분			구입 등록 권수	대출권수	대출권수비율 (%)	연평균 대출권수비율(%)
학년도	산정 연수	대출권수 산정 기간				
2014	1년	(2014.03.~2015.02.)	21,045	6,139	29.17	29.17
2013	2년	(2013.03.~2015.02.)	32,821	13,148	40.06	20.03
2012	3년	(2012.03.~2015.02.)	35,608	16,995	47.73	15.91
2011	4년	(2011.03.~2015.02.)	38,535	21,466	55.71	13.93
2010	5년	(2010.03.~2015.02.)	38,190	24,396	63.88	12.78
2009	6년	(2009.03.~2015.02.)	46,729	30,345	64.94	10.82
2008	7년	(2008.03.~2015.02.)	47,728	32,657	68.42	9.77
계			260,656	145,146	55.68	-

※ 대출권수비율(%) = 대출권수 / 구입등록권수 * 100

※ 연평균 대출권수비율(%) = 대출권수비율(%) / 산정연수

이는 K대학교서관이 연구중심보다는 교육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장서개발정책 수립 시 양서보다 동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연평균 대출권수비율(%)을 살펴보면, 동서의 경우 최저 2013학년도 56.27%부터 최고 2010학년도 64.61%까지, 양서의 경우 최저 2009학년도 18.51%부터 최고 2014학년도 24.54%까지 조사되어 동서, 양서 모두 구입 시기가 오래된 도서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이용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연도별 대출권수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수)

구입 도서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수를 분석해 볼 수 있다. K대학교서관에서 연도별로 특정

해에 구입 등록된 권수 대비 대출권수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구입된 도서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4학년도 1년 동안 K대학교서관에서 구입 등록된 도서는 21,045권이고, 그 도서가 해당 기간 동안에 이용된 대출권수는 6,139권으로 2014학년도 대출권수비율(%)은 29.17%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3학년도 1년 동안 구입된 32,821권은 2년 동안 13,148권의 대출권수 통계를 보여 대출권수비율(%)은 40.06%, 연평균 대출권수비율(%)은 20.03%로 나타났다.

구입 시기가 오래된 도서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8학년도(최근 기준으로부터 7년 전) 1년 동안 구입된 47,728권의 도서는 7년 동안 32,657권의 대출권수 통계를 보였으며, 대출권수비율(%)은 68.42%, 연평균 대출권수비율(%)은 9.77%로 나타났다. 이

〈표 5〉 연도별 대출권수 당 대출횟수 (전체 도서)

구 분	동서			양서			계		
	대출 횟수	대출 권수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	대출 횟수	대출 권수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	대출 횟수	대출 권수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
2014	10,191	5,270	1.93	1,021	869	1.17	11,212	6,139	1.83
2013	32,190	12,087	2.66	1,655	1,061	1.56	33,845	13,148	2.57
2012	51,250	15,264	3.36	3,442	1,731	1.99	54,692	16,995	3.22
2011	79,118	19,606	4.04	4,406	1,860	2.37	83,524	21,466	3.89
2010	109,638	22,730	4.82	4,315	1,666	2.59	113,953	24,396	4.67
2009	145,624	28,082	5.19	6,125	2,263	2.71	151,749	30,345	5.00
2008	183,467	30,817	5.95	6,117	1,840	3.32	189,584	32,657	5.81
계	611,478	133,856	4.57	27,081	11,290	2.40	638,559	145,146	4.40

※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 = 대출횟수 / 대출권수

는 7년 전 구입 도서가 7년 동안 68.42%는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반면, 31.58%는 한 번도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⁸⁾ 또한, 2008~2014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구입된 260,656권은, 해당 기간 동안 145,146권의 대출권수 통계를 보여 대출권수비율(%)이 55.68%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하여 7년 동안 구입된 전체 도서 중 55.68%는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반면, 44.32%는 한 번도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연도별 대출권수비율(%)을 비교해 볼 때, 구입 시기가 오래될수록 대출권수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출횟수비율(%)과 유사하게 오래된 도서에 대한 꾸준한 이용 요구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7년간의 연평균 대출권수비율(%)을 살펴보면, 2014학년도 29.17%, 2013학년도 20.03%, 2012학년도 15.91%, 2011학년도 13.93%, 2010학년도 12.78%, 2009학년도 10.82%, 2008학년도 9.77%로 나타나 연평균 대출횟수비율(%)과 달리 오래된 도서일수록 매년 수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입 시기가 오래될수록 특정 도서에 이용 요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도서에 대한 이용 집중 현황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연도별 대출권수 당 대출횟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입 시기가 오래된 도서일수록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학

8) 1975년 미국의 피츠버그대학팀의 장서이용 조사에 의하면, 특정 해에 수서된 장서 중 7년 동안 이용된 자료는 51.6%로 나타났다(Kent et al.(1979)).

9)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운영 및 국가대출체계 구축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설문 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학도서관의 장서규모에 따라 10년 동안 한번도 대출되지 않은 도서의 비율은 약 28%~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동철 외(2006)).

〈표 6〉 연도별 대출권수 (동서)

구 분			구입 등록 권수	대출권수	대출권수비율 (%)	연평균 대출권수비율(%)
학년도	산정 연수	대출권수 산정 기간				
2014	1년	(2014.03.~2015.02.)	16,884	5,270	31.21	31.21
2013	2년	(2013.03.~2015.02.)	28,601	12,087	42.26	21.13
2012	3년	(2012.03.~2015.02.)	29,416	15,264	51.89	17.30
2011	4년	(2011.03.~2015.02.)	33,664	19,606	58.24	14.56
2010	5년	(2010.03.~2015.02.)	33,941	22,730	66.97	13.39
2009	6년	(2009.03.~2015.02.)	41,214	28,082	68.14	11.36
2008	7년	(2008.03.~2015.02.)	43,396	30,817	71.01	10.14
계			227,116	133,856	58.94	-

년도 구입 도서의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은 1.83이며, 점차 증가하여 2008학년도 구입 도서의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은 5.81로 나타났다. 이는 구입 시기가 오래될 수록 특정 도서에 이용 요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장서개발정책(보존 및 폐기) 수립시 지속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오래된 도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언어별 이용 현황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표 4>의 연도별 대출권수를 동서와 양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6>, <표 7>과 같다.

동서의 경우 연도별 대출권수는 <표 6>과 같으며, 2008학년도(최근 기준으로부터 7년 전) 1년 동안 구입된 43,396권의 도서는 7년 동안 30,817권의 대출권수 통계를 보여 대출권수비율(%)은 71.01%로 나타났다. 즉, 7년 전 구입 도서 중 동서의 경우 7년 동안 71.01%는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반면, 28.99%는 한 번도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8~2014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구입된 227,116권은, 해당 기간 동안 133,856권의 대출권수 통계를 보여 대출권수비율(%)이 58.94%로 나타났다.

〈표 7〉 연도별 대출권수 (양서)

구 분			구입 등록 권수	대출권수	대출권수비율 (%)	연평균 대출권수비율(%)
학년도	산정 연수	대출권수 산정 기간				
2014	1년	(2014.03.~2015.02.)	4,161	869	20.88	20.88
2013	2년	(2013.03.~2015.02.)	4,220	1,061	25.14	12.57
2012	3년	(2012.03.~2015.02.)	6,192	1,731	27.96	9.32
2011	4년	(2011.03.~2015.02.)	4,871	1,860	38.19	9.55
2010	5년	(2010.03.~2015.02.)	4,249	1,666	39.21	7.84
2009	6년	(2009.03.~2015.02.)	5,515	2,263	41.03	6.84
2008	7년	(2008.03.~2015.02.)	4,332	1,840	42.47	6.07
계			33,540	11,290	33.66	-

양서의 경우 연도별 대출권수는 <표 7>과 같으며, 2008학년도(최근 기준으로부터 7년 전) 1년 동안 구입된 4,332권의 도서는 7년 동안 1,840권의 대출권수 통계를 보여 대출권수비율(%)은 42.47%로 나타났다. 즉, 7년 전 구입 도서 중 양서의 경우 7년 동안 42.47%는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반면, 57.53%는 한 번도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8~2014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구입된 33,540권은, 해당 기간 동안 11,290권의 대출권수 통계를 보여 대출권수비율(%)이 33.66%로 나타났다.

2008~2014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구입된 260,656권의 대출권수비율(%)은 55.68%이며 이와 비교해 볼 때, 동서는 58.94%, 양서는 33.66%로 언어별 이용 현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동서, 양서 간 대출권수비율(%) 차이와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 연구 중심의 자료가 다수인 양서의 경우 일부 도서에 이용요구가 집중되기보다 특정 연구자, 특정 주제 분야에 한정되어 이용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이용 분석 II :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된 도서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K대학도서관에서의 희망도서 신청 주체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학술’은 구성원 중 전임교원이 주체가 되며, ‘희망’은 전임교원 이외 구성원이 주체가 되고, ‘신간’과 ‘전공’은 도서관 사서가 주체가 된다. ‘학술’과 ‘희망’은 구성원들의 희망도서 신청에 의하여 선정되고, ‘신간’과 ‘전공’은 도서관 선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됨을 의미한다. 이중 ‘신간’은 인문·교양 관련 베스트셀러, 수상 도서 등을 포함하고, ‘전공’은 강의지원 도서, 학과/전공 관련 전공, 교재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4.1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 도서 현황

K대학도서관에서의 최근 2년(2013. 03.

<표 8>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 도서 현황 (언어별)

신청 주체		동서		양서		계		동서 선정 비율 (%)	양서 선정 비율 (%)
구분	주체	구입 등록 권수	비율 (%)	구입 등록 권수	비율 (%)	구입 등록 권수	비율 (%)		
학술	전임교원	3,878	8.53	5,242	62.55	9,120	16.93	42.52	57.48
희망	전임교원 외 구성원	11,835	26.02	1,347	16.07	13,182	24.47	89.78	10.22
신간	도서관 사서	25,900	56.94	48	0.57	25,948	48.17	99.82	0.18
전공	도서관 사서	3,872	8.51	1,744	20.81	5,616	10.43	68.95	31.05
계		45,485	100	8,381	100	53,866	100	-	-

01.~2015. 02. 28.)간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언어 구분에 의한 구입 도서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의 경우 도서관 사서가 신청 주체인 ‘신간’ 도서관 전체 등록 권수 45,485권 중 25,900권 선정으로 56.94% 비율을 나타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임교원 외 구성원이 신청 주체인 ‘희망’ 도서 비율이 26.0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임교원이 신청 주체인 ‘학술’ 도서 비율 8.53%, 도서관 사서가 신청 주체인 ‘전공’ 도서 비율이 8.5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서의 경우에는 ‘학술’ 도서관 전체 등록 권수 8,381권 중 5,242권 선정으로 62.55% 비율을 나타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공’ 20.81% > ‘희망’ 16.07% > ‘신간’ 0.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간’ 48.17% > ‘희망’

24.47% > ‘학술’ 16.93% > ‘전공’ 10.43% 순으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사서 주체(신간+전공) 대 구성원 주체(희망+학술)로 구분해 보면 사서 주체에 의한 등록 비율은 58.60%, 구성원 주체에 의한 등록 비율은 41.40%로, 사서:구성원 선정 비율이 약 6:4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동서와 양서 선정 비율을 비교해 보면, ‘신간’, ‘희망’, ‘전공’ 순으로 동서 선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학술’의 경우에는 양서 선정 비율이 57.48%로 나타나 동서 선정 비율(42.52%) 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임교원이 신청하는 ‘학술’ 도서의 경우 전문 연구 중심 자료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횟수

K대학도서관에서 최근 2년(2013. 03. 01.~

<표 9>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횟수

신청 주체		동서			양서			계		
구분	주체	구입 등록 권수	대출 횟수	대출횟수 비율 (%)	구입 등록 권수	대출 횟수	대출횟수 비율 (%)	구입 등록 권수	대출 횟수	대출 횟수 비율 (%)
학술	전임교원	3,878	2,218	57.19	5,242	1,611	30.73	9,120	3,829	41.98
희망	전임교원 외 구성원	11,835	18,371	155.23	1,347	649	48.18	13,182	19,020	144.29
신간	도서관 사서	25,900	18,526	71.53	48	3	6.25	25,948	18,529	71.41
전공	도서관 사서	3,872	3,266	84.35	1,744	413	23.68	5,616	3,679	65.51
계		45,485	42,381	93.18	8,381	2,676	31.93	53,866	45,057	83.65

※ 대출횟수비율(%) = 대출횟수 / 구입등록권수 * 10

2015. 02. 28.)간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 등록한 도서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횟수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의 경우 ‘희망’ 신청으로 구입된 11,835권이 18,371회 대출되어 대출횟수비율(%) 155.23%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공’ 도서의 대출횟수비율(%)은 84.35%, ‘신간’ 도서의 경우 71.53%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술’ 도서의 대출횟수비율(%)이 57.1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서의 경우에는 ‘학술’ 도서의 대출횟수비율(%)이 30.73%로 조사되어 ‘희망’ 도서 (대출횟수비율 48.1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공’ 23.68%, 신간 6.25% 순으로 나타나 동서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전문 연구 중심의 자료를 더 선호하고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횟수비율(%)을 살펴보면, ‘희망’ 144.29% >

‘신간’ 71.41% > ‘전공’ 65.51% > ‘학술’ 41.98% 순으로 나타나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로 이용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이용요인 (use factor)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이용 현황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기 위하여 Bonn의 이용요인 값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용요인 값은 Bonn (1974)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대출비율을 장서비율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용요인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분야 장서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이용요인 값이 적으면 해당 분야 장서가 적게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조사한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횟수를 근거로 이용요인(use factor) 값을 산출하여 비교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이용요인 값을 살펴보면, ‘희망’ 도서의 경우 구입 등록 권수 비율(%) 24.47%, 대출횟수비율(%) 42.21%로 나타나,

<표 10>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이용요인(use factor)

신청 주체		구입 등록 권수		대출횟수		이용요인
구분	주체	구입 등록 권수	비율(%)	대출횟수	비율(%)	
학술	전임교원	9,120	16.93	3,829	8.50	0.50
희망	전임교원 외 구성원	13,182	24.47	19,020	42.21	1.72
신간	도서관 사서	25,948	48.17	18,529	41.12	0.85
전공	도서관 사서	5,616	10.43	3,679	8.17	0.78
계		53,866	100	45,057	100	-

※ 이용요인 = 대출횟수비율(%) / 구입등록권수비율(%)

〈표 11〉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권수

신청 주체		동서			양서			계		
구분	주체	구입 등록 권수	대출 권수	대출권수 비율 (%)	구입 등록 권수	대출권 수	대출권수 비율 (%)	구입 등록 권수	대출권 수	대출권수 비율 (%)
학술	전임교원	3,878	1,191	30.71	5,242	1,317	25.12	9,120	2,508	27.50
희망	전임교원 외 구성원	11,835	6,120	51.71	1,347	433	32.15	13,182	6,553	49.71
신간	도서관 사서	25,900	9,052	34.95	48	3	6.25	25,948	9,055	34.90
전공	도서관 사서	3,872	994	25.67	1,744	177	10.15	5,616	1,171	20.85
계		45,485	17,357	38.16	8,381	1,930	23.03	53,866	19,287	35.81

※ 대출권수비율(%) = 대출권수 / 구입등록권수 * 100

이용요인 값이 1보다 큰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외 구성원들이 신청 주체인 ‘희망’의 경우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되는 자료가 다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선호하거나, 수요가 많은 자료에 집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간’ 도서의 경우 이용요인 값은 0.85, ‘전공’의 경우 0.78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임교원이 신청 주체인 ‘학술’ 도서의 이용요인 값은 0.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임교원이 신청한 도서의 경우 다른 희망도서 신청 주체 도서에 비해 구입 이후 이용이 적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이용요인 값을 통하여 ‘희망’ > ‘신간’ > ‘전공’ > ‘학술’ 순으로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자료구입 예산 편성시 이용요인 값이 높은 ‘희망’ ‘신간’ 도서에 집중하여 배정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4.4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권수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수)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 등록된 도서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수를 분석해 볼 수 있다. K대학도서관에서 최근 2년(2013. 03. 01. ~ 2015. 02. 28.)간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권수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의 경우 ‘희망’ 신청으로 구입된 11,835권 중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는 6,120권으로 대출권수비율(%) 51.71%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간’ 도서의 대출권수비율(%)은 34.95%, ‘학술’ 도서의 경우 30.71%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 12〉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권수 당 대출횟수

신청 주체		동서			양서			계		
구분	주체	대출 횟수	대출 권수	대출 1권당 대출횟수 비율	대출 횟수	대출 권수	대출 1권당 대출횟수 비율	대출 횟수	대출 권수	대출 1권당 대출횟수 비율
학술	전임교원	2,218	1,191	1.86	1,611	1,317	1.22	3,829	2,508	1.53
희망	전임교원 외 구성원	18,371	6,120	3.00	649	433	1.50	19,020	6,553	2.90
신간	도서관 사서	18,526	9,052	2.05	3	3	1.00	18,529	9,055	2.05
전공	도서관 사서	3,266	994	3.29	413	177	2.33	3,679	1,171	3.14
계		42,381	17,357	2.44	2,676	1,930	1.39	45,057	19,287	2.34

※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 = 대출횟수 / 대출권수

‘전공’ 도서의 대출권수비율(%)이 25.6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횟수와 유사하게 양서의 경우에는 ‘학술’ 도서의 대출권수비율(%)이 25.12%로 ‘희망’ 도서(대출권수비율 32.15%)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공’ 10.15%, ‘신간’ 6.25% 순으로 나타나 동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권수비율(%)을 보면, ‘희망’ 49.71% > ‘신간’ 34.90% > ‘학술’ 27.50% > ‘전공’ 20.85% 순으로 나타나 ‘희망’ 144.29% > ‘신간’ 71.41% > ‘전공’ 65.51% > ‘학술’ 41.98% 순으로 나타났던 대출횟수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 도서의 경우 대출횟수에 비하여 대출권수 이용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전공’으로 구입된 도서 중 다수가 강의지원도서로 지정되어 대출 이력이 없는 실내 대출자료로 구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5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권수 당 대출횟수

대출권수 1권 당 이용 집중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권수 당 대출횟수를 비교해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의 경우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은 ‘전공’ 3.29 > ‘희망’ 3.0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간’ 2.05 > ‘학술’ 1.86 순으로 조사되었다.

양서의 경우에는 ‘전공’ 2.33 > ‘희망’ 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술’ 1.22 > ‘신간’ 1.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을 보면, ‘전공’ 3.14 > ‘희망’ 2.90 > ‘신간’ 2.05 > ‘학술’ 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전공’ 도서의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이 가장 높고, ‘학술’ 도서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

다.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이 높은 ‘전공’, ‘희망’ 도서의 경우 특정 도서에 이용 요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이 낮은 ‘학술’ 도서의 경우 특정 연구자나 특정 주제 분야에서만 한정되어 이용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서개발정책 수립시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이 높은 ‘전공’, ‘희망’ 도서의 경우 복본수를 늘려 구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제한

전자자료의 수요 증가 및 급속적인 양적 확대, 소장 공간 부족 문제, 도서 이용률 및 도서관 이용자 감소, 지속적인 자료구입비 예산 삭감 등은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합리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요구 충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은 구입된 도서의 이용평가,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 도서 이용평가 등 장서이용평가를 통한 전략적 장서개발정책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울 소재 K대학도서관을 연구사례로 선정하고, 수서업무 중심적으로 구입 도서의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하여 대학도서관에서 자관의 특성을 고려한 장서개발정책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수서업무의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도서 선정 기준 및

장서개발정책에 의하여 구입된 도서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K대학도서관에서 최근 7년(2008. 03. 01.~2015. 02. 28.)간 구입 등록한 260,656권을 대상으로 연도별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된 도서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K대학도서관에서 최근 2년(2013. 03. 01.~2015. 02. 28.)간 구입 등록한 53,866권을 대상으로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로 특정 해에 구입 등록된 권수 대비 해당 도서의 대출횟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학년도(최근 기준으로부터 7년 전) 1년 동안 구입된 47,728권의 도서는 7년 동안 189,584회의 대출횟수 통계를 보여 대출횟수비율(%)이 397.22%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7년 전 구입된 도서 1권당 7년 동안 약 4회의 대출횟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7년간의 연평균 대출횟수비율(%)이 2014학년도 53.28%, 2013학년도 51.56%, 2012학년도 51.20%, 2011학년도 54.19%, 2010학년도 59.68%, 2009학년도 54.12%, 2008학년도 56.75%로 나타나, 구입 시기가 오래된 도서도 지속적인 이용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서개발정책(보존 및 폐기) 수립시 해당 통계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언어별 이용 현황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연도별 대출횟수 현황을 동서와 양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08~2014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구입된 260,656권의 대출횟수비율(%)은 244.98%이며 이와 비교해 볼 때, 동서는 269.24%로 높은 이용 통계를 보이는 반면, 양서는 80.74%로 나타나 언어별 이용 현황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서개발정책 수립시 양서보다 동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연도별로 특정 해에 구입 등록된 권수 대비 대출권수(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학년도(최근 기준으로부터 7년 전) 1년 동안 구입된 47,728권의 대출권수비율(%)은 68.42%로 나타났으며, 이는 7년 전 구입 도서가 7년 동안 68.42%는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반면, 31.58%는 한 번도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8~2014학년도 전체 기간 동안 구입된 260,656권의 대출권수비율(%)은 55.68%로 나타났으며, 이는 7년 동안 구입된 전체 도서 중 55.68%는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반면, 44.32%는 한 번도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7년간의 연평균 대출권수비율(%)을 살펴보면, 2014학년도 29.17%, 2013학년도 20.03%, 2012학년도 15.91%, 2011학년도 13.93%, 2010학년도 12.78%, 2009학년도 10.82%, 2008학년도 9.77%로 나타나 연평균 대출횟수비율(%)과 달리 오래된 도서일수록 매년 수치가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구입 시기가 오래될수록 특정 도서에 이용 요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서개발정책(보존 및 폐기) 수립시 지속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오래된 도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최근 2년(2013. 03. 01.~2015. 02. 28.)간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언어 구분에 의한 구입 도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 사서가 신청 주체인 ‘신간’ 도서가 48.17% > 전임교원 외 구성원이 신청 주체인 ‘희망’ 도서가 24.47% > 전임교원이 신청 주체인 ‘학술’ 도서가 16.93% > 도서관 사서가 신청 주체인 ‘전공’ 도서가 10.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서 주체(신간+전공) 대 구성원 주체(희망+학술)로 구분해 보면 사서 주체에 의한 등록 비율은 58.60%, 구성원 주체에 의한 등록 비율은 41.40%로, 사서:구성원 선정 비율이 약 6:4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동서와 양서 선정 비율을 비교해 보면, ‘신간’, ‘희망’, ‘전공’ 순으로 동서 선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학술’의 경우에는 양서 선정 비율이 57.48%로 오히려 동서 선정 비율(42.5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이 신청하는 ‘학술’ 도서의 경우 전문 연구 중심 자료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최근 2년(2013. 03. 01.~2015. 02. 28.)간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횟수를 조사한 결과,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횟수비율(%)은, ‘희망’ 144.29% > ‘신간’

71.41% > ‘전공’ 65.51% > ‘학술’ 41.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요인(use factor) 값도 ‘희망’ 1.72 > ‘신간’ 0.85 > ‘전공’ 0.78 > ‘학술’ 0.50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로 이용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희망’의 경우 구입 이후 가장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학술’의 경우 구입 이후 가장 이용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자료구입 예산 편성시 이용이 활발한 ‘희망’, ‘신간’, ‘전공’, ‘학술’ 순으로 집중하여 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최근 2년(2013. 03. 01.~2015. 02. 28.)간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권수 당 대출횟수를 조사한 결과,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은, ‘전공’ 3.14 > ‘희망’ 2.90 > ‘신간’ 2.05 > ‘학술’ 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전공’ 도서의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이 가장 높고, ‘학술’ 도서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이 높은 ‘전공’, ‘희망’ 도서의 경우 특정 도서에 이용 요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이 낮은 ‘학술’ 도서의 경우 특정 연구자나 특정 주제 분야에서만 한정되어 이용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서개발정책 수립시 대출 1권당 대출횟수비율이 높은 ‘전공’, ‘희망’ 도서의 경우 복본수를 늘려 구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출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출 통계 없이 이용되고 있는 도서에 대한 분석은 제외되어 있으며, 이에 본 연구의 통계 결과를 전체 K대학도서관 이용 통계로 볼 수 없다. 또한, 대출 통계가 없는 자료들이 도서관 장서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통계 결과를 장서의 질과 연관시킬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K대학도서관 전체 소장 도서 중 약 24%¹⁰⁾에 해당하는 260,656권의 단행본 도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에서 제외된 단행본 도서 및 비도서, 전자자료 등에 대한 이용 분석은 제외되어 있다.

셋째, 본 연구 범위는 연구사례로 선정된 K대학도서관의 장서 구분 기준 및 이용 통계 현황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도서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입 도서의 이용평가, 희망도서 신청 주체별 구입 도서 이용평가 등 장서이용평가 결과가, 대학도서관에서 자관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수서업무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http://www.rinfo.kr>) 통계를 기준하였을 때, K대학도서관 도서수(전자책 제외)는 1,073,599권이다(2015.03.01. 기준).

참고문헌

- 곽동철 외(2006),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운영 및 국가대출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미향(1996), 「연구중심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위한 대출통계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선애(2013), 「대학도서관의 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4호, 115-131면.
- 서봉호(2008), 「대학도서관 대출통계 분석을 통한 장서평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송영희 외(2011),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한국도서관협회.
- 윤희윤(2014), 『장서관리론』, 한국도서관협회.
- 장우녕, 이용구(2014), 「대학도서관에서 희망도서 이용통계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 201-208면.
- 학술정보통계시스템. ‘<http://www.rinfo.kr>’
- 황옥경(2007),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 선정주체에 따른 도서 선정 효과성 비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 125-138면.
- Bonn, Georges S.(1974), “Evaluation of the Collection”, Library Trends, Vol22, No.3, pp.265-304.
- Kent, Allen et al.(1979), Use of Library Materials: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Study, Marcel Dekker.
- Matthews, Joseph R. ; 오동근 역(2010), 『도서관 서비스의 평가와 측정』, 태일사.